

이 콘텐츠는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라 최초 제작일부터 5년간 보호됩니다.
본 콘텐츠의 무단 배포 시,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본문해설

하늘은 날더러 **구름**이 되라 하고

↳ 떠도는 삶의 이미지

땅은 날더러 **바람**이 되라 하네.

청룡(靑龍) 흑룡(黑龍) 흩어져 비 개인 나루

비구름이 흩어진 모습으로, 목계 나루에 얹힌 전설을 바탕으로 한 시구

잡초나 일깨우는 **잔바람**이 되라네.

뱃길이라 서울 사흘 목계 나루에

민중들의 삶의 애환이 서린 장터

↳ 가루분(여자들의 화장품)

아흐레 나흘 찾아 **박가분** 파는

5일장으로 장이 서는 9일, 4일

가을별도 서러운 **방물 장수** 되라네.

떠돌이 상인(민중과 애환을 함께함)

[1~7행: 방랑하는 삶에 대한 인식]

산은 날더러 **들꽃**이 되라 하고

↳ 정착하여 이름 없는 민중으로 살아가는 삶을 의미

강은 날더러 **잔돌**이 되라 하네.

산서리 맵차거든 풀 속에 얼굴 묻고

물여울 모질거든 바위 뒤에 붙으라네.

민물 새우 끓어 넘는 토방 텃마루

토속적인 삶의 모습 / 3음보로 변주

석삼년에 한 이레쯤 **천치(天痴)**로 변해

세속의 이해나 욕망을 다 떨쳐버린 존재

짐부리고 **앉아 있는 떠돌이**가 되라네.

정착하고 싶은 소망

[8~14행: 고달픈 삶의 애환과 정착에의 소망]

[하늘은 날더러 바람이 되라 하고

산은 날더러 잔돌이 되라 하네.]

[] ⇨ 1,2행을 변주하는 내용으로, 방랑하는 삶과 정착의 삶 속에서 갈등하는 시적 화자의 모습이 집약됨

[15~16행: 방랑과 정착 사이에서 갈등함]

▣ 핵심 정리

- ◆ 갈래 : 자유시, 서정시
- ◆ 성격 : 서정적, 향토적, 비유적
- ◆ 제재 : 떠돌이(민중)의 삶
- ◆ 주제 : 떠돌이 민중의 삶의 애환
- ◆ 특징 :
 - ① 대립적 심상의 시어들을 통해 시상을 전개함.
 - ② 향토성 짙은 시어들을 사용함.
 - ③ 4음보를 기본 율격으로 하되 3음보로 변주되고 있음.
 - ④ 1인칭 화자의 독백적 진술 형태를 취함.
- ◆ 출전 : 「농무」(1973)

▣ 구성

- ① 떠나는 삶 - 방랑(1-7행)
- ② 머무르는 삶 - 정착(8-11행)
- ③ 떠나는 삶(12-14행)
- ④ 떠나고 머무르는 삶(15-16행)

▣ 중요 시어 및 시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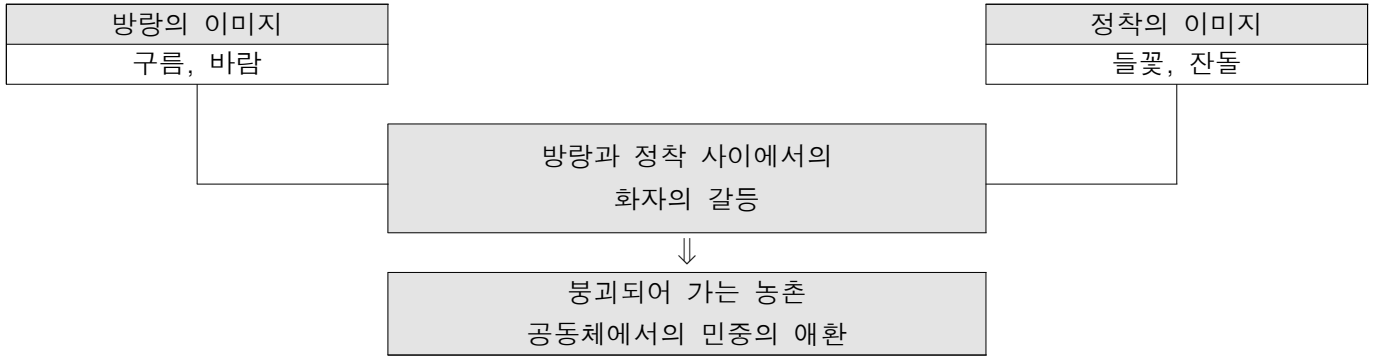
- * 목계장터 → 근대화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서울로 가는 길목의 하나로 큰 시장이 서기도 했다. 근대화의 과정에서 몰락의 길을 걷고 있는 농촌 공동체로서 민중들의 삶의 애환과 슬한 사연이 배어 있는 곳이다. 정착하거나 안주할 곳이 아니라 잠깐 쉬어 가는 곳이지만, 넉넉한 인정이 아직도 살아 있는 공간이다.
- * 구름, 바람, 잔 바람, 방물장수
 - ① 떠돌이의 삶, 방랑, 유랑, 초연한 삶, 자유로움 등의 이미지로 제시됨.
 - ② 세속적인 일상으로부터 벗어난 자의 자유로움과 정신적 주유(周遊)를 의미함.
- * 들꽃, 잔돌 앉아 쉬는 떠돌이 → 한 곳에 정착하여 삶을 견뎌내는(인내) 것들.
- * 청룡 흑룡 흩어져 비 개인 나루 → 전설을 배경으로 하는 시어가 사용되어 이해에 어려움을 줌.
(청룡과 흑룡은 비를 몰고 오는 구름의 형상을 상징한 것)
- * 뱃길이라 서울 사흘 목계 나루에
 - 서울에서 목계 나루까지 뱃길로 사흘이 걸림을 알 수 있음. 전통적 민요 리듬을 깔고 있는 이 시의 특성상 4음보의 시적 운율을 위해 축약한 것임.
- * 산서리 맵차거든, 물여울 모질거든 → 모진 시련이 닥치거든(민중의 삶의 애환)
- * 민물 새우 끓여 넘는 토방 뒷마루 → 풍성하고 넉넉한 인심을 의미
- * 석삼년에 한 이레쯤 천치로 변해 / 짐 부리고 앉아 쉬는 떠돌이가 되라
 - 세속적이고 일상적인 삶의 틀이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 삶의 고달픔을 잊어 보고자 하는 시적 자아의 의지를 표상함.
- * 천치 → 순진무구하면서도 탈세속적인 삶을 사는 사람
- * 마지막 2행 → 차라리 천치가 되어 짐 부리고 앉아 쉬고 싶지만, 몸은 끝없이 떠돌 수밖에 없는 처지에 대한 인식이 바탕이 된 운명의 소리

▣ 감상 포인트

이 시의 제목이기도 한 '목계 장터'는 1910년대까지 중부 지방 각종 산물의 집산지로서 남한강안(南漢江岸)의 수많은 나루터 중 가장 번창했지만, 일제 식민지 수탈 정책의 일환으로 충북선이 부설되자 점차 그 기능을 상실한 곳이다. 이신은 바로 이 '목계 장터'를 공간적 배경으로 삼아 점차 붕괴되어 가고 있는 농촌사회 속에서 떠돌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민중의 애환을 그리고 있다. 이 시는 전체적으로 방랑과 정착의 이미지가 두 축을 이루고 있다. 1~7행은 '구름', '바람', '방물방수' 등의 시어가 지니는 방랑의 이미지들을 통해 떠돌이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 대한 화자의 인식이 드러나 있다. 8~14행은 정착의 이미지를 지니는 '들꽃', '잔돌'의 시어를 통해 정착한

삶에 대한 화자의 미련을 드러내는 한편, 떠돌이로서 느끼게 되는 고달픈 삶의 애환과 휴식에 대한 소망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15~16행은 방랑과 정착의 갈림길에서 갈등하는 화자의 모습을 보여 줌으로써 방랑과 정착의 기로에 서 있는 농촌 공동체의 삶을 상징적으로 그려 내고 있다. 구성면에서는 1~7행, 8~14행이 유사한 맥락으로 이루어져 있고, 15, 16행은 1, 2행과 8, 9행을 변주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안정된 구조를 보여 주고 있다. 또한 민요조의 4음보 가락과 ‘-하고’, ‘-하네’, ‘-라네’ 등의 어미를 반복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생동감 있는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한눈에 보기



▣ 작품 속 시어 사전

구름, 바람	유랑의 이미지로 떠돌아다니는 화자의 삶을 상징함.
방물장수	떠돌이로밖에 살 수 없는 화자의 운명적 인식을 드러내는 소재임.
들꽃, 잔돌	정착의 이미지로서 뿌리내리고 사는 민중의 삶을 의미함.
산서리, 물여울	들꽃과 잔돌에게 시련을 주는 대상
천치	잠시라도 떠돌이로서의 삶의 어려움을 잊고픈 소망을 드러내는 시어임.

▣ ‘방물장수’의 의미

방물장수는 여자들에게 소용되는 물건을 파는 상인들을 가리키는 말로서 전통사회에서 일종의 민중적인 이야기꾼 역할을 했다. 즉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보고 들은 것들을 구수하게 엮어 내는 입담을 가진 존재로 민중의 애환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지켜보고, 그 이야기들을 이곳 저곳에 전파하던 존재였던 것이다. 따라서 이 시에서 화자가 ‘방물장수가 되라’는 것은, 바로 ‘민중들의 삶을 가까이서 지켜보고 그들과 애환을 함께 하는 이야기꾼이 되라’는 시인의 말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시인이 항상 민중의 입장에서 그들을 대변하는 존재로서의 자신의 삶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목계 장터’에 나타난 민요 가락

신경림은 일찍부터 민요에 관심을 두고 자신이 직접 민요 운동을 주도했다. 이 운동의 일환으로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민요를 수집하고 민요 보급 운동에 적극 참여하기도 하였는데, 이 때 습득된 민요의 가락이 이 시 ‘목계 장터’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즉 전통 민요에서 흔히 볼 수 있는 4음보의 가락을 기본 토대로 하고 있고, 각 음보를 구성하는 음절수도 3·4조에 기반하고 있다. 또한 ‘-하고’, ‘-하네’, ‘-라네’ 등의 어미를 반복 활용함으로써 시상 전개에 리듬감 및 생동감을 주고 있다.

▣ ‘목계 장터’의 상징적 의미를 알아보자

이 시의 제목이자 공간적 배경이 되는 ‘목계 장터’는 실제로 존재했던 구체적인 지명이지만, 이 작품 속에서는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이는 ‘목계 장터’가 예전 농경이 중심이 되던 시대의 번성했던 여러 장터들에 대한 대표성을 지니기 때문이다. 즉, 이 시의 목계 장터는 퇴색해 가는 농촌 공동체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게 때문에 화자의 독백적 어조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적 삶의 애환을 토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퇴색해 가는 농촌 사회 속에서 떠돌이의 운명을 지닐 수밖에 없는 민중의 삶을 대변하게 되는 것이다

■ 이해와 감상

이 시는 목계 장터라는 구체적 삶의 공간을 설정하여 그 곳에서 살아가는 민중들의 삶의 모습을 구체화하고 있다. 장터는 민중들의 삶의 집결체이다. 민중들의 삶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곳이기도 하다. 시인은 이러한 구체적 삶의 공간을 통해 민중들의 삶과 애환을 토속적 언어로 담담하게 그려 내고 있다. 1인칭 화자의 독백에 의해 드러나는 유랑인의 삶은, 곧 민중 모두의 삶의 모습이기도 하다.

이 시에는 특히 민요적 가락과 일상어 구사가 돋보인다. 이들은 이 시가 서정성을 띠게 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이 시 제목 자체가 토속성을 띠는 것도 서정성 형성에 기여하는 요소의 하나다. 이 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주의 깊게 바라보아야 할 것은 '구름', '바람', '들꽃', '잔돌' 등의 시어다. 이러한 시어들이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가를 살피는 일은 이 시를 이해하는 하나의 관건이 된다. '구름'과 '바람'은 떠남(떠돌이)의 이미지이며 '들꽃'과 '잔돌'은 정착의 이미지다. 그리고 이 심상 사이에서 방물 장수와 떠돌이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민중들과 시인 자신의 운명을 은근히 암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 시는 떠남과 정착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의미망이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이 시는 표면상 1인칭 화자의 독백으로 진술되어 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독백을 단지 화자 개인의 삶의 애환을 토로하는 것으로만이 아니라, 떠돌이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민중의 고뇌라는 일반화된 삶의 현실을 대변하는 것으로서 인식할 수 있다. 그것은 이 시가 '목계 장터'라는 생활 현실의 공간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서정적 주체가 보고 듣고 체험한 사실들이 시적 표현의 바탕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구름', '바람' 등으로 표상되는 떠남의 심상과 '들꽃', '잔돌' 등으로 표상되는 정착의 심상 사이의 대조적 표현은 퇴색해 가는 목계 나루에서 방랑과 정착의 갈림길에 서 있는 농촌 공동체의 시대적 삶과 화자의 개인적 삶 사이의 갈등을 선명하게 보여 준다.

■ 이해와 감상2

이 시는 신경림의 시 세계를 한 아름다운 거점이 되고 있는 '목계 장터'를 제재로 하고 있다. 목계는 남한강안(南漢江岸)의 수많은 나루터 중에서 가장 번잡하였던 곳이다. 목계를 중심으로 한강 마을 사람들의 억센 생명력을 상징과 비유를 통해 형상화시키고 있다. 그러니까 이 작품은 떠돌이 장사꾼들의 삶의 공간인 목계 장터를 중심으로 민중들의 삶과 애환을 토속적 언어로 담담하게 그려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작품은 신경림 시인이 민요에 대한 관심을 보여 왔던 한 시기 가운데 가장 빼어난 성과를 이룩한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4음보의 가락을 주조(主調)로 하여 '하고', '하네', '-라네' 등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며 방랑과 정착의 심상이 교차하는 가운데 이 시는 생동감 있게 전개된다.

이 시의 배경 또한 자신을 '잔바람'이나 '방물장수', '들꽃', '잔돌'과 같은 존재로 보는 깨달음과 깊은 연관을 맺고 있다. 왜냐하면 '목계 장터'는 민중들의 삶의 애환이 집중되는 곳이기 때문이다. 그 곳은 한때 남한강변에서 가장 번화한 나루터이자 장터였지만 이제는 근대화의 과정에서 몰락의 길을 걷고 있는 전통적인 촌락 공동체이고, 몰락해가고 있는 농촌 공동체를 떠나는 사람들이 떠나가는 나루터이기도 하다. 따라서 그 곳에는 무수한 사연들이 배어 있고 민중들의 삶의 애환이 집중되어 있다.

또한, 이 시는 표면상 시적 자아의 독백 형식으로 되어 있으며 시인 자신의 삶에 대한 것으로 이해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시인과 시적 자아가 밀착되어 있다. 시적 자아에게 있어서 '구름'이나 '바람'처럼 떠돌아다니는 자신의 삶은 곧 하늘이 부여한 운명이자 시대가 규정한 삶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시적 자아는 그러한 운명을 기꺼이 받아들인다. 그것은 한편으로 서러운 운명이기도 하지만 아무 것에도 얽매이거나 구속받지 않는 자유로운 삶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시적 자아는 자신에게 '목계 장터'에 '짐부리고 앉아 쉬는 천치', 즉 '방물장수'가 되어 그 모든 변화와 그 모든 삶의 애환을 보고 듣는 존재가 되라고 하는 운명의 소리를 듣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시인 자신의 삶의 행로, 그리고 민중들의 삶과 밀착되려고 애써 온 그의 시와 그대로 일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시인으로서의 그는 민중들과 더불어 살면서 그들의 삶의 애환을 전해 주는 이야기꾼(방물장수)으로 살아왔거니와, '목계 장터'는 그와 같은 시인 자신의 삶을 소박한 언어와 경쾌한 민요적 율격, 그리고 빛나는 이미지들로 아름답게 형상화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 이해와 감상3

이 시는 표면상 시적 자아의 독백 형식으로 되어 있으며 이는 시인 자신의 삶에 대한 것으로 이해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시인과 시적 자아가 밀착되어 있다. 시적 자아에게 있어서 '구름'이나 '바람'처럼 떠돌아다니는 자신의 삶은 곧 하늘이 부여한 운명이자 시대가 규정한 삶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시적 자아는 그러한 운명을 기꺼이 받아들인다. 그것은 한편으로 서러운 운명이기도 하지만 아무것에도 얽매이거나 구속받지 않는 자유로운 삶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시의 배경 또한 자신을 '잔바람'이나 '방물 장수' '들꽃', '잔돌'과 같은 존재로 보는 깨달음과 깊은 연관을 맺고 있다. 왜냐 하면 '목계 장터'는 민중들의 삶의 애환이 집중되는 곳이기 때문이다. 그곳은 한때 남한 강변에서 가장 번화한 나루터이자 장터였지만 이제는 근대화의 과정 속에서 몰락의 길을 걷고 있는 전통적인 촌락 공동체이고, 몰락해 가는 농촌 공동체를 떠나는 사람들이 떠나가는 나루터이기도 하다. 따라서, 그곳에는 무수한 사연들이 베어 있고 민중들의 삶의 애환이 집중되어 있다. 시적 자아는 자신에게 '목계 장터'에 '짐부리고 앉아 쉬는 천치', 즉 '방물 장수'가 되어 그 모든 변화와 그 모든 삶의 애환을 보고 듣는 존재가 되라고 하는 운명의 소리를 듣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시인 자신의 삶의 행로, 그리고 민중들의 삶과 밀착되려고 애써 온 그의 시와 그대로 일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시인으로서의 그는 민중들과 더불어 살면서 그들의 삶의 애환을 전해 주는 이야기꾼(방물 장수)으로 살아 왔거니와, '목계 장터'는 그와 같은 시인 자신의 삶을 소박한 언어와 경쾌한 민요적 율격, 그리고 빛나는 이미지들로 아름답게 형상화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화자가 서 있는 목계 나루는 서울로 가는 길목의 하나로, 예전에는 큰 시장이 서기고 했던 곳이다. 그러나 지금은 그 자취가 많이 남아 있지 않다. 장이 설 때마다 찾아오는 방물장수와 9년에 한 번씩 찾는 떠돌이에게서 그 흔적을 찾아볼 수는 있으나, 그것 역시 흔한 것은 아니다.

이처럼 퇴색하여 가는 목계 나루에서 방랑과 정착의 갈림길에 서 있는 민중들과 시적 화자의 갈등을 이 시는 진솔하게 표현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민요적 가락과 수사적 표현을 적절하게 사용하였다. 또한 이 시에는 토속적인 소재와 어휘들이 사용되어 목계 나루의 옛 정서를 물씬 풍기게 하고 있다. 이러한 서정의 세계는 잃어버린 것, 지금은 없는 것을 표현한 것이지만, 동시에 이를 회복하고자 하는 시인의 강한 열망을 표현한 것이기도 하다.

운율면에서는, 민요의 리듬을 연상시키는 4음보를 주된 율격으로 하면서, '하고', '하네', '-라네' 등의 어미를 반복적으로 구사하여 생동감 있는 시상(詩想)을 전개하고 있다.

내용면에서는, 전체적으로 방랑과 정착의 이미지가 교차되어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강', '구름', '바람' 등으로 표상되는 떠남의 이미지와, '산', '들꽃', '잔돌'로 표상되는 정착의 이미지는 떠돌이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던, 그 시대 민중들과 시인 자신의 운명을 은근히 암시한 것이다.

■ 이해와 감상4

시인은 서울로 가는 길목의 하나로 남한강 안에서 가장 번잡했던 곳인 목계를 중심으로 한강 마을 사람들의 삶과 생명력을 노래하고 있다. 목계 나루 주변의 풍물과 어휘들이 토속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면서 목계 나루의 옛 서정이 되살리는 장치로 이용되고 있으며, 구름과 잔바람, 방물 장수로 표상된 '떠남'의 이미지와 들꽃과 잔돌로 표상된 '정착'의 이미지가 시 전체의 주제를 구성하는 두 축이 되고 있다. 표면상 1인칭 화자의 독백으로 진술되어 있지만, 그 독백은 화자 개인의 삶의 애환을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떠돌이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민중의 삶의 현실을 대변하는 것이다. 이 시는 퇴색해 가는 목계 나루에서 떠남과 정착의 기로에서 있는 농촌 공동체의 시대적 삶을 선명하게 보여 주고 있다.

신경림 시인은 민요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의 시편들에도 그러한 관심이 반영되었는데, 이 시는 그러한 측면에서 빼어난 성과를 보여 주는 작품이기도 하다. 이 시는 전통적인 민요의 리듬을 연상시키는 4음보의 가락을 주조(主調)로 하여 '하고', '하네', '-라네' 등의 어미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생동감 있게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한편 이 시의 1~7행에서 하늘과 땅은 날더러 구름이나 바람, 혹은 '방물 장수'가 되라고 하고, 8~14행에서 산과 강은 날더러 들꽃이나 잔돌, 혹은 '떠돌이'가 되라고 한다. 이를 보면, 8~14행은 1~7행과 같은 맥락임을 알 수 있다. 또한 15~16행은 1 2행과 8 9행을 변화 반복하여 주제를 강조하는 안정된 구조를 보여 주고 있다.

내용확인

1. 핵심정리

갈래 : (), ()

성격 : (), (), ()

제재 : ()(=)의 삶

주제 : ()(=)의 삶의 ()

특징 :

- ① () 심상의 시어들을 통해 시상을 전개함.
- ② () 짙은 시어들을 사용함.
- ③ ()를 기본 율격으로 하되 ()로 변주되고 있음
- ④ () 화자의 ()적 진술 형태를 취함.

2. 아래 빈 칸을 채우시오.



3. 다음 빈 칸에 올바른 답을 넣으라.

구름, 바람	()의 이미지로 떠돌아다니는 화자의 삶을 상징함.
()	떠돌이로밖에 살 수 없는 화자의 ()적 인식을 드러내는 소재임.
들꽃, 잔돌	()의 이미지로서 뿌리내리고 사는 ()의 삶을 의미함.
() ()	들꽃과 잔돌에게 시련을 주는 대상.
()	잠시라도 떠돌이로서의 삶의 어려움을 잊고픈 소망을 드러내는 시어임.

서술형

1. 이 시를 네 단락으로 나누고자 한다. 둘째 단락과 넷째 단락이 시작되는 시행의 첫 세 어절을 각각 쓰라.

2. 이 시에는 두 가지 삶의 방법이 제시되어 있다. 그것을 단어로 쓰고 또한 그것이 형상화되어 있는 매개어를 각각 두 가지씩 찾아 쓰라.

3. 이 시에서 목계가 장터일 수 있는 근거를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시행을 찾아 쓰라.

4. 이 시의 ‘나’에는 어떠한 삶의 모습이 나타나 있는지 한 문장으로 쓰라.

5. 시 속의 화자는 누구인가?

6. ‘누가’ 나에게 ‘무엇’이 되라 하는가?

7. ‘무엇’에 해당하는 것들을 성격의 차이에 따라 두 묶음으로 나누어 보고 그 성격의 차이를 정리해 보아라.

8. 들꽃, 잔돌 앉아 쉬는 떠돌이가 되기 위한 ‘나’의 행동은 어떠해야 하는가?

9. 시 속에 드러난 '나'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가?

10. 이 시에서 어떤 운율감이 느껴지는가?

11. 시적 화자의 발언을 통해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대체 무엇일까?

12. 방랑 · 유랑의 이미지(떠돌이의 삶)를 나타내는 시어 5개를 찾으라.

13. 정착의 이미지(민초의 삶)를 나타내는 시어 2개를 찾으라.

14. 시련, 고난을 의미하는 시구 2개를 찾아 두 어절로 적으라.

15. '풍성하고 넉넉한 인심'이 느껴지는 시행은?

16. '세속적 이해와 명리를 벗어 던진 존재'를 의미하는 시어를 찾으라.

17. 15, 16행을 참고했을 때, 화자는 어떠한 내적 갈등을 겪고 있는가?

정답 및 해설

내용확인

1. <답>

자유시, 서정시 / 서정적, 향토적, 비유적
떠돌이(민중) / 떠돌이 민중, 애환
대립적 / 향토성 / 4음보, 3음보
1인칭, 독백

2. <답>

구름, 바람 / 잔돌, 들꽃 / 방랑, 정착 / 민중, 애환

3. <답>

방랑 / 방물장수, 운명
정착, 민중 / 산서리, 물여울 / 천치

서술형

1. <답> 산은 날더러 들꽃이, 하늘은 날더러 바람이

2. <답>

방랑 : 구름, 바람, (잔바람, 방물장수, 떠돌이)
정착 : 들꽃, 잔돌

3. <답> 아흐레 나흘 찾아 박가분 파는'

4. <답> 한 곳에 정착하여 살고 싶어도 떠돌 수밖에 없
는, 뿌리 뽑힌 민중들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

5. <답> 나(방랑과 정착 사이 고뇌하는 떠돌이)

6. <답>

누가 : 하늘, 땅, 산, 강
무엇 : 구름, 바람, 잔바람, 방물장수, 들꽃, 잔돌, 앓
아 쉬는 떠돌이

7. <답>

구름, 바람, 잔바람, 방물장수 : 한 곳에 머물지 못하고
떠돌아다님. 방랑
들꽃, 잔돌 앓아 쉬는 떠돌이 : 한 곳에 정착하여 삶을
건더냄.

8. <답>

풀 속에 얼굴 묻고, 바위 뒤에 붙고, 석삼년에 한 이레

잠 천치로 변해야 함.

9. <답>

방랑의 삶과 정착의 삶에 대한 욕구가 함께함.

10. <답>

4음보, 민요조

11. <답> 떠돌이의 삶의 애환

12. <답> 구름, 바람, 잔바람, 방물장수, 떠돌이

13. <답> 들꽃, 잔돌

14. <답> 산서리 맵차거든, 물여울 모질거든

15. <답>

민물 새우 끓여 넘는 토방 툇마루

16. <답> 천치

17. <답> 방랑과 정착 사이의 갈등